

지역 소식통

김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달 28일 '2024년 제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40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자 중 연간 납부 실적 미달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목적 사용 여부 등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업기술센터 신활력강화실에서 김제시 제2기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김제시민 17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총 9회, 30시간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재활용의 이해 등 자원순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수료자는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로 위촉돼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이 강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제2기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청렴에 진심인 완주 돼야”

## 유희태 완주군수, 1부서 1청렴 시책 보고회 개최

완주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일 완주군은 '2024년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해 41개 부서에서 추진한 1부서 1청렴 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 주재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청렴슬로건 제정 활동 △외부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 해피콜 운영 △직원 자기진단을 통한 청렴 온도계 설치 △청렴실천 다짐



1일 완주군은 '2024년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 날 운영 △복지 청렴기동대 운영 등 참신한 시책들이 제안됐다.

완주군은 청렴시책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청렴시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오는 7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원칙이자 사회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다"며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 체계구축, 청렴한 공직사회조성, 민관협력 청렴문화 확산 등 3대전략을 중심으로 한 32개 세부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전 직원 청렴대면교육, 이날 열린 1부서 1청렴 시책까지 '청렴에 진심인 정책' 실현에도 힘을 보태겠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한지를 활용해 무드등을 제작하고 있다.

## 완주 청소년 문화의집, '한지 무드등 만들기'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캘리그래피로 1년 목표 설정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주말체험 활동으로 한지 무드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소년 33명과 함께 한 주말체험 활동에서는 한지를 활용해 무드등을 제작하고 그 위에 캘리그래피를 이용해 1년간의 목표와 버킷리스트 등을 적어보며 각자 목표를 설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지 무드등 만들기는 압화 공예를 접목한 활동으로 한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불빛과 한지 속에서 빛의 다름을 알 수 있는 활동이다.

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압화 공예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한지를 활용해 무드등을 만들다보니 더욱 더 집중해서 만들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든 무드등 위에 앞으로의 다짐을 멋진 글귀로 적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공예 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등 청소년 1~2학년 대상으로 교과, 체험, 귀가,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62-794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꽃빛드리축제서 사회적경제 꽃 피우다

### 사회적경제 판매·홍보 부스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된 꽃빛드리축제에서 사회적경제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홍보 코너에서는 △사회적경제 퀴즈, △김제 사회적경제 인스타 팔로우, △사회적경제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꽃 화분', '사회적경제 간식 꾸러미', '친환경 커피박 연필' 등의 풍성한 선물을 증정해, 축제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판매 코너에서는 사회적기업인 △선한나무(나무 공예품), △달로보물투게더 김제(빵, 쿠키), △새만금유기농구지봉(꾸지뽕 누룽지·쌀국수), 마을기업인 △(영)사르뫼(한과)가 참여해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또 협동조합인 △스튜디오(사진 체험), △몽상두개비협동조합(나무 공예품)도 각각 체험, 전시 부스에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이번 축제에 참여해 사회적경제가 활짝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회적경제'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마주한 여러 문제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개념이며,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의 활동 주체(이하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시는 총 11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자리에서 취약계층 고용,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 환원,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확산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경제를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일장,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스마트농업 AI경진대회 최우수상

### 도 공모사업 4개 단체 3억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년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기반을 마련해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시의 청년정책은 5개 분야(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2개 단체(영업협동조합, 오후협동조합)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일자리, 출산, 보육 등의 지역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단체(탑마을, 그리움들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스마트농업 AI경진대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농부들이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 보조금 최대 상한액 300만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대기보조금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18대의 전기 이륜차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보급할 예정으로 보조금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체적인 차종별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비 30만원,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해 3개월 이상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구매자는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은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시 내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및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